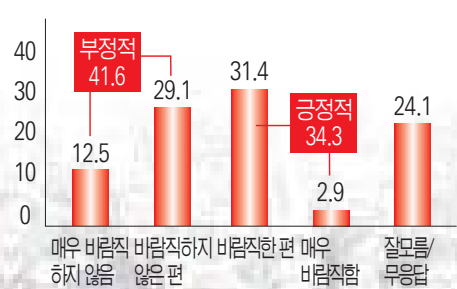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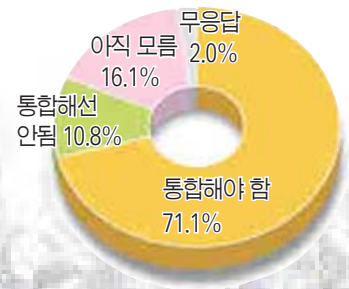
광주일보·KBC 공동 18대 총선 1차 여론조사

후보 선호도 신당 30%, 민주당 12%, 한나라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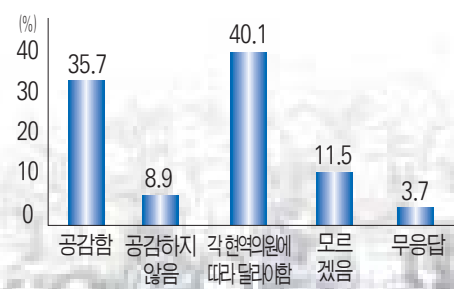
■ 노무현정부 고위직 인사들 총선출마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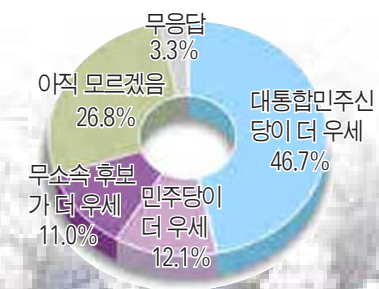
■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 통합 필요성



■ 호남 현역의원 물갈이론



■ 08년 국회의원선거 전망 - 다수의석 확보 정당



설문내용

1. 올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의 소속 정당만을 본다면, 어느 당 후보를 가장 지지하고 싶으십니까?
1) 대통합민주신당 후보 2) 한나라당 후보 3) 민주당 후보 4) 민주노동당 후보 5) 창조한국당 후보 6) 자유선진당 후보 7) 무소속 후보 8) 아직 모르겠다
2.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의 통합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통합해야 한다 2) 통합해서는 안된다 3) 아직 모르겠다
3. 만약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이 통합한다면, 가장 적합한 통합형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1) 대통합민주신당 중심의 통합 2) 민주당 중심의 통합 3)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간 대등한 통합 4) 아직 모르겠다
4. 만약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간 통합이 안 된다면, 올 4월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 대통합민주신당 후보, 무소속 후보 중 가장 많은 국회의원을 배출할 곳이 어디라고 보십니까?
1) 대통합민주신당이 더 우세할 것이다 2) 민주당이 더 우세할 것이다 3) 무소속 후보가 더 우세할 것이다 4) 아직 모르겠다
5. 이번 4월 총선과 관련하여 호남 현역의원의 물갈이론에 대한 찬반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호남 현역의원 물갈이론에 공감한다 2) 호남 현역의원 물갈이론에 공감하지 않는다 3) 현역의원에 따라 달라야 한다 4) 아직 모르겠다
- 5-1. 귀하께서 사시는 지역의 현역 () 국회의원이 현역의원 물갈이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십니까?
1) 물갈이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2) 물갈이 대상이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3) 잘 모름
6. 현 노무현 정부에서 장·차관급 고위직을 지낸 인사들의 광주·전남 국회의원선거 출마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 매우 바람직하지 않음 2) 바람직하지 않은 편 3) 바람직한 편 4) 매우 바람직함 5) 잘 모름

“신당 우세 할 것” 47%...민주당 12%, 무소속 11% 순
71% “신당·민주 통합해야”...“대등한 통합” 의견 다수

■ 조사개요

1,017명 전화 설문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실시된 이번 조사 표본은 인구비례에 기초해 지역·연령·성별로 할당된 뒤 한국통신이 발행한 전화번호부를 모집단으로 삼아 체계적으로 선정됐다. 특히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60대 이상 연령층에 가중치를 부여했다. 선정된 여론조사 대상자는 19세 이상 성인 남녀로, 광주 405명 전남 612명 등 총 1천17명이다. 이 가운데 남자는 48.8%인 496명, 여자는 51.2%인 521명이며, 연령대별로는 20~30대가 11%, 40대가 34.8%, 50대가 21%, 60대가 33.1%였다. 조사의 최대 허용 표집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2% 포인트다.

▲정당 후보별 선호도=4월 총선에서 후보자의 소속 정당만을 본다면 어느 당 후보를 지지할 것인지, '정당 후보별 선호도'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10명 중 3명 수준인 29.6%가 '대통합민주신당'을 지목했다. '민주당'을 선택한 응답자는 12.0%로, 신당 후보에 대한 선호도에 비해 17.6% P가 더 떨어졌다. 민주당 후보 선호도의 경우 전남이 14.7%로 광주의 7.9%에 비해 2배가 더 높은 것으로 집계,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이 광주보다는 전남에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투표에 많이 참여하는 50대 이상, 고졸 이하, 남성층에서 신당 후보에 대한 선호도가 민주당 후보에 대한 선호도보다 높았다.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선호도는 7.1%로 대통령 선거 이전과 큰 차이가 없었으며, 무소속 후보에 대한 선호도는 5.5%로 조사됐다. 민주노동당 선호도도 4.3%가 나왔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아직 모름'은 응답이 35.3%로 신당 후보를 선호한다는 응답보다도 많아, 아직까지 마음을 정하지 못한 '부동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당과 민주당의 통합=총선의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신당과 민주당 간의 통합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절대 다수인 71.1%가 '통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통합해서 안 된다'는 답변은 10.8%에 그쳤다. '통합 촉구'가 대세인 셈이다. 계층별로는 전통적 투표 주력층인 남성, 50대 이상, 고졸 이하 층에서 상대적으로 통합 촉구 의견이 두드러졌다.

통합의 방식에 대해서는 '신당과 민주당 간 대등한 통합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은 42.7%였다. 신당 중심의 통합을 원하는 응답자는 27.5%, 민주당 중심의 통합을 원하는 답변은 10.3%로 집계됐다. ▲18대 총선 결과 전망=신당과 민주당의 통합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를 전제로 올 4월 총선에서 가장 많은 국회의원을 배출할 정당을 묻는 질문과 관련하여선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6.7%가 '신당이 더 우세할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이 더 우세할 것'이라는 답변은 12.1%에 불과했다. 이 같은 수치는 '무소속이 우세할 것'으로 답변한 11.0%에 비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전통적으로 호남을 지지기반으로 성장해 온 민주당의 쇠퇴가 확인되 드러나 보이는 대목이다. ▲호남 현역의원 물갈이론=이번 총선의 최대 이슈 가운데 하나인 물갈이론과 관련, 호남 현역의원 물갈이에 대한 찬반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응답자 중 가장 많은 40.1%가 '각각의 현역의원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고 답했다.

다. '물갈이에 공감한다'는 응답자는 35.7%였다. 이는 '물갈이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한 8.9%에 비해 27% P가 더 많은 수치다. 광주·전남지역민들은 호남 현역의원 물갈이론에 대체로 공감하고 있지만, 일괄적이고 무차별적인 물갈이보다는 개별 현역의원들의 평가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특히 광주 7개, 전남 13개 등 광주·전남지역 20개 선거구 모두에 대해 해당 선거구의 현역 의원 물갈이 여부를 물었으나 표본이 적어 공식 발표하기에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라 조사결과 발표를 유보했다. ▲장차관급 고위 인사의 호남 출마 쇄도=현 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낸 인사들의 출마에 대해서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12.5%, '바람직하지 않다' 29.1%로 부정적 평가가 41.6%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바람직하다' 31.4%, '매우 바람직하다' 2.9% 등 긍정적 평가에 포함될 수 있는 응답은 34.3%였다.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다소 우세한 셈이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연